

‘무늬만 박물관’ 나주배박물관 도내 첫 등록 취소

전시실·학예사 등 규정 못미쳐 부실한 콘텐츠

관람객 2년새 3분의 1로 ‘뚝’...만성적자 악순환

전남지역 공립박물관 32개중 20개가 미등록 상태

전남지역 공립박물관 3곳 중 2곳 가량이 ‘무늬만 박물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에서 처음으로 등록이 취소된 박물관이 나왔다.

관객이 외면하고 이에 따라 만성적자를 보게 되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나주배박물관에 대한 실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992년 2중 박물관으로 개관한 지

22년 만에 등록 취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도내 박물관 가운데 규정 미흡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이반이 처음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2009년 제정)에 따라 배박물관은 유물 60점 이상, 전시실(82㎡이상), 학예사, 수장고, 화재·도난방지시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유물은 29점에 불과한 데다 학예사도 확보하지 못했다.

관람객의 발길도 점점 줄어 지난 2010년 9000명, 2011년 5000명에서, 지난 2012년에는 불과 2년 전의 3분의 1로 3000명에 불과했다.

한편 도내 박물관 중 상당수는 규정에 미치지 못한 미등록 박물관이다. 32개 공립박물관 가운데 등록 박물관은 영산호농업박물관, 강진청자박물관, 한국차박물관 등 12개에 불과하고 이번에 등록 취소된 배박물관을 포함 나머지 20개는 미등록 상태다.

유물과 전시실 면적 확보 등도 쉽지 않은 데다 학예사 채용 등이 여의치 않은 것이 미등록의 가장 큰 원인이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박물관 명칭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재가 없는 데다 최근 관광객 유인 등을 이유로 지

역마다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박물관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강진청자박물관 등 6곳을 제외한 26곳이 지난 2000년대 이후 개관했으며, 연간 평균 관람객은 5989명에 불과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박물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수지 적자액이 무려 448억원에 이르렀다.

전남도 관계자는 “배 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박물관은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실있는 박물관 운영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호남 거점문학관 선정

이달말 전국 순회문학콘서트

1930년대 순수 시 운동을 전개했던 문학동인회를 한자리에 모은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사진)이 호남권 거점 문학관으로 선정됐다.

강진군은 20일 “한국문화재단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최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 거점 문학관 선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과 목포문학관을 광주·전남·전북 지역 거점 문학관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오는 5월까지 전국 거점 문학관을 순

회하며 펼칠 ‘문학 나눔 - 전국 순회 문학콘서트’ 프로그램에 목포문화관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

‘문학 나눔 - 전국 순회 문학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프로젝트로, 일종의 퓨전 문학 토크쇼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3일 강원권(박경리 문학공원·토지문학관)을 시작으로 수도권(문학의 집 서울·한무숙 문학관), 경기권(환송원 문학관·잔야문학관), 호남권(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목포문학관), 경산권(동리목월 문학관·이육사 문학관), 제주권(제주문학의 집) 등 전국 8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화순읍 대리교차로~삼천리 구간 23일 조기 개통

화순읍 대리교차로~삼천리 구간 430m가 오는 23일 조기 개통한다. 이 도로는 화순읍 영남리와 대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55호선 7.73km(4차로) 구간 중 일부로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개통한다.

이 구간은 평소 화순읍과 고흥, 보

성 등지로 나가는 차량이 영키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이어서 이번 개통으로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8월 착공, 2015년말 완공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00억원이 투입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 홍길동테마파크내

‘오토캠핑장’ 내달 운영

장성군은 20일 “홍길동테마파크 내 4688㎡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핑장에는 신형 캐러밴(지입 캠핑카 트레일러) 20대가 설치돼 있으며, 취사장 및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장성의 대표 관광명소인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만큼 인근의 풋살 경기장과 홍길동생가, 산채 등의 각종 시설의 이용 및 관람이 가능하며, 주변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용 가격은 6인실 캐러밴 8만원(주말 10만원), 4인실 캐러밴 6만원(주말 8만원)이며, 예약은 위탁사업자인 휴파크 홈페이지(www.hupark.com)를 통해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주 배-영주 사과 담은 ‘홍동백서’ 출시

설을 앞두고 지난 19일 나주 배와 영주사과 혼합세트인 ‘홍동백서’ 출시를 위해 나주배 선별장에서 포장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12년 첫 출시된 ‘홍동백서’는 지난해 설에는 1만4000상자가 판매됐으며, 올해도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

나주 배와 영주사과 혼합세트인 ‘홍동백서’ 출시를 위해 나주배 선별장에서 포장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12년 첫 출시된 ‘홍동백서’는 지난해 설에는 1만4000상자가 판매됐으며, 올해도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전북

‘정읍지향’ 명성 되찾기 총력

농기센터, 육성 품종·재배기술 농가 보급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정읍지향’의 옛 명성을 되찾고 전국단위 특산물 메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0일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읍지향’은 지난 1992년 농림부 지향 주산단지 지정 당시 운동지역 재배면적은 45ha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했다. 그러나 한약재 수입과 연작장애 발생에 따른 면적 감소로 최근에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센터는 재래품종의 퇴화, 연작 장애 등 지향 재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토강’, ‘대경’ 등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을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해 농가에 보급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시험연구사업과 안전 다수확을 위한 농가 실증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

비가림 재배 및 재배법 개선 등 기술보급에도 주력해 지난해 10a당 농가 평균 3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지향을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육성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재배면적은 18ha로 늘었고, 생지향연구회 50농가가 재배에 나서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

생산자 단체 전국 최대 규모...지역소농·마을공동체·주민기업 조합원 참여

완주로컬푸드가 운영조직의 범인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 전국적인 첫 사례로 로컬푸드의 새역사를 다시 쓰게 됐다.

완주로컬푸드는 명실상부한 생산자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재탄생했으며 생산자 단체로는 전국적으로 최대규모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발기인회(대표 안대성)는 20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1000여 명의 생산자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1호, 자주, 자조, 자립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인 완

주군과 10개 농·축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협동조합 전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로컬푸드 사업추진에서 종자돈이 된 완주군 출자금 5억원과 10개 농·축협 7억9500만원 등 12억9500만원을 출자자에게 되돌리고 새롭게 생산자 및 소비자의 출자 및 참여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 1044명의 지역소농, 마을공동체, 주민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조합원 출자금은 최소 50만원(1구좌 10만원)으로 영세소농 및 고령농

은 1구좌(10만원)만 출자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20일 현재 모인 출자금은 6억원에 이른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창립총회에 앞서 열린 생산자 전진대회 특강에서 “완주군이 누구도 걸여보지 않은 로컬푸드에 도전해 꽃을 피웠듯이 다수 소농이 모든 의사결정의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창립으로 또 한 번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협동조합이 단기간 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획생산, 농민가공, 관계시장 확대, 생산자·소비자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주 덕진광장 설치

‘발열벤치’ 인기

전주시가 덕진시민광장에 평균 섭씨 30도를 유지하는 탄소흡수 발열벤치(사진)를 설치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벤치는 탄소소재로 된 열선을 내부에 삽입해 전기를 공급하면 탄소소스가 발열돼 따뜻해지는 원리로 제작됐다. 탄소흡수유로 벤치의 표

면을 제작해 열의 전도를 높여 낮은 소비전력으로 원적외선을 방출하며, 전자파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바람의 언덕’이라는 디자인 구성을 덕진시민광장에 접목시켜 조성하고 있다. 이번 발열벤치도 겨울철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시내·외버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됐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광한루원 설맞이 대청소

남원시 시설사업소는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등 관광지 시설물 및 화장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광한루원 및 춘향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고창 기초수급자 등 주거공간 개선 3억6000만원 지원

고창군은 올해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로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을 개선해주기 위해 3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120세대로 각 세대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의

노후된 주택 지붕개량,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이다. 특히 거주자의 안전과 위생, 생활편의를 위한 수선과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개량·보수를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는 24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남원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남원시는 20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삶을 실현하는 남원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해 예총회원 등 문화예술관련자들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연간 7억5000만원씩 5년간 예산이 투입된다. 남원문화도시 조성사업 용역은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용자금 20억 지원

순창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소득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20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 용자금을 지원한다.

용자지원 한도액은 농업인 3000만원, 법인은 80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 1.5%의 저금리로 NH농

협은행 순창군지부를 통해 지원된다.

용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지리산 시래기·냉동 나물류 미국 수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20일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시래기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지리산 청정 냉동시래기 및 냉동 나물류등 가공품이 올해부터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미국 전역에 4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동부 최대의 아시아 마트인 H마트와의 직거래

형태로 이뤄졌다. 수출 규모는 냉동시래기 등 15종에 3만개로, 거래금액은 약 5만달러 수준이다.

남원시 노암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래기 가공공장은 춘향골 사립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로 지난 2005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됐다. /남원=백선기자 bs8787@